

실제적 자연인식에 근거한 생태학적 건축 연구

A Ecological-Architecture based on a real Perception of nature

손 찬* / Shon, Chan

신범식** / Shin, Bhum-Shik

Abstract

Human Being is being that have the reason as well as body, and first liaison consists through this body justly with outside. The essence of environmental problem such as today can speak that is a harmful traces for health that leave in air, water, soil that pass body. Actual nature is 'Ecological nature', that is necessary for human life directly in survival and offer the integrated relations with harmony. This grafting of principle, that is a construction for architecture and interior architecture in environment furtherance, is required. This is not a subject of usefulness and contemplation, but essential approach the cogredience, that is forming connection directly with nature, is required. Therefore, this research does Questel about 'Nature epistemology, which nature and human's relation can be integrated by alive practical relation. Through this, the Relatedness of 'Natural environment and construction surrounding' is accomplished 'the whole unity' and this research wish to investigate basis that a actual human work's environment can be completed as 'Ecological nature'.

키워드 : 실제적 자연인식, 동시적 관계, 단계적 질서, 안정적 경계, 유한성, 동질성

Keywords : Real natural Perception, Contemporary Relation, the Phase of Order, the Stability of Boundary, Homogeneity, Limitedness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자연은 인간 의식의 유무와 관계없이 존재한다고 보면 오늘과 같은 생태계문제는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오늘과 같은 생태계 문제와 관련한 건축적 인식은 과학 분야에서 제공되는 오염정도에 대한 임계치수, 에너지 효율, 재료의 건강성 등 물리·화학적으로 기술(記述)된 자료들에 의해 간접적으로 제공된 것이다. 그러나 자연과의 관계는 과학적 자료에 의한 간접적인 자연 뿐 아니라, 신체와 직접 접촉하고 느끼는 동시적(同時的)으로 관계하고 있는 실제(實在)의 자연도 존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자연은 인간과의 사실적 현실성과 생동적 접촉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고(思考)로 해석된 간접 자연이 아닌 것이다. 바로 오늘과 같은 생태계 문제의 직접적인 원인도 과학기술 우위의 세계관에 있다고 보고 심층생태학(전일적 세계관)의 카프라, 리프킨 등은 자연에 관한 근본적인 인식 변환을 요구하고 있다.

자연과의 직접적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생태학적 지각이론, 환경미학 등을 들 수 있는데 여전히 인간의 신체와의 동시적 생명적 관계를 설명하는 데는 일정 부분 한계를 가지고 있다.¹⁾

특히 생태학적 건축의 근원적인 토대인 자연과 인간 그리고 건축·실내건축 환경의 조화로운 통합은 실제의 자연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태학적 건축의 사례로 제시되는 "유기적 의미의 경우 곡선과 장식의 형태적 접근, 기계주의적 자연관의 기술(技術)에 근거한 건축 그리고 디지털 기술에 의한 형태해석"²⁾ 등은 생명적 관계라는 자연과의 통합에 일치할 수 없는 간극이 견지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생태학적 건축·실내건축의 방법적 접근에서 실제에 대한 자연인식을 근거로 하는 한 방도를 모색하고

1) 전자는 김슨(J.J.Gibson), 후자는 벌리언트(A.Berleant)의 이론을 들 수 있는데 김슨은 모든 지각체계의 기능은 "보는것"이라고 주장하고 위계상 상위에 있는 눈을 중심으로 하는 지각체계를 구성한다. (오영근, 건축공간디자인에서의 신체적도 적용에 관한 연구, 1997, 홍익대학교, 박사논문, p.144) 벌리언트는 자연과의 통합적 지각관계에도 불구하고 그의 저서 The Aesthetics of Environment, Philadelphia, Temple Univ. press, 1992, p.78에서 언급된, 건축물의 위치 선정은 개인적인 믿음과 문화적인 믿음의 구현이라는 선언은 주체적 지위가 인간중심에 있음을 볼 수 있다.

2) 전자는 아르노보, 유겐드 스틸과 같은 형태적 해석과 후자는 아키텍그램, 메타볼리즘과 같이 생명적 원리를 생산과 소비라는 기계적 해결로 인식한 사례 그리고 지나치게 기술지향적인 접근을 말한다.

* 정희원, 서울시립대학교 건축공학과 박사과정 수료

** 정희원,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건축공학박사

자 하며, 이를 위한 접근으로 자연 인식론에 대한 탐구를 목적으로 한다. 그 다음으로 이와 같은 자연인식을 토대로 자연환경과 건축환경이 실제적 통일체(統一體)를 이루는 건축·실내건축의 기초 원리를 고찰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방법과 범위

실재의 자연인식은 인식과 실재가 일치됨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우선 인식이론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를 통해 이에 부합하는 자연 인식의 방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그러나 인식은 지각과 인지라는 일련의 과정을 포함하고 있지만 본 연구의 논거 방향 상, 감각지각 문제는 제외한다.

그리고 건축·실내건축 적용 요소를 추출하기 위하여 실재의 자연을 인식하는 인간의 느낌(정서성)에 대한 구체적 항목을 파악하여 건축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토대로 자연과 건축사례에서 구체적으로 부합된 표현 특성을 항목별로 분류하여 실재의 자연인식에 근거한 틀을 추출하게 된다. 사례는 본 연구의 특성 상, 자연요소와 토속건축, 지역주의 건축 등 생태학적 건축으로 연구에서 언급되었던 것에서 선별하였다.

13. 용어의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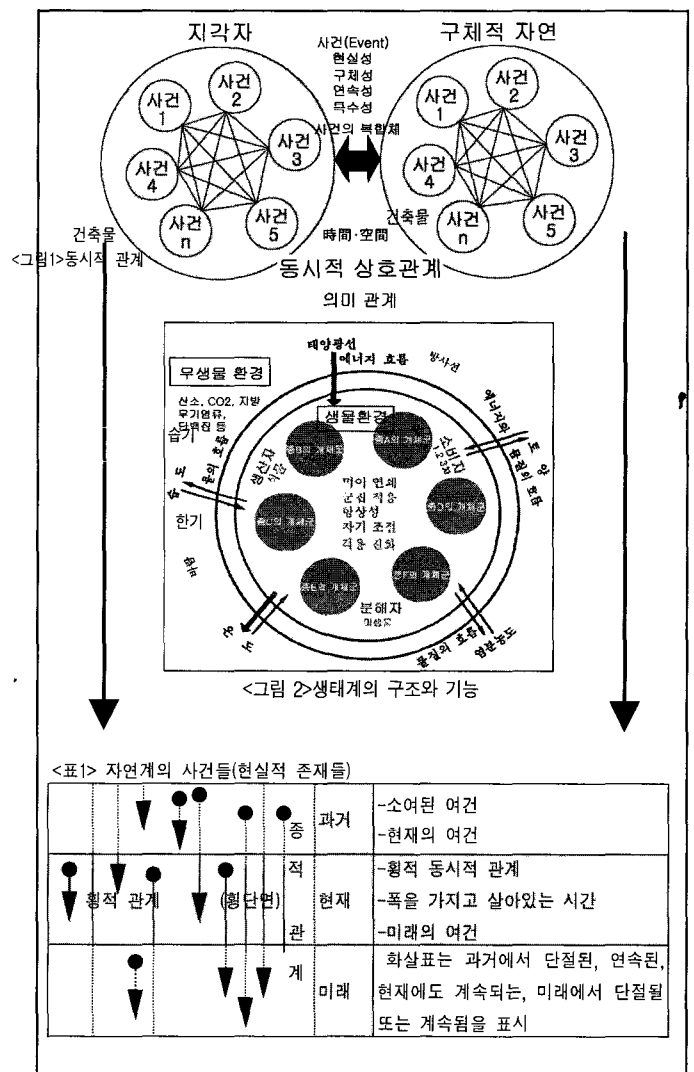
환경3)·생태계4)·자연5)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얽혀 있어도 동일한 개념은 아니다.6) 일반적으로 강물의 오염, 대기 오염, 쓰레기 문제, 실내 공기오염 등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생존을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를 총칭하여 환경문제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나 환경은 생태계보다 좁은 개념이다. 생태계는 또 자연보다 좁은 개념으로 본 연구의 배경은 생태계의 개념을 근거로 한 총체적 자연이 된다.

2. 실재의 자연과 인식

- 3)현재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 의미는 인간의 환경만을 지칭하는 제한적 개념으로 '인간의 삶의 조건' 또는 '인간을 둘러싼 것'으로 인간의 경우만을 적용하고 있다. 환경에 존재된 생명체는 주로 인간을 뜻하며 인간의 삶의 조건을 주로 말하며 인간 중심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
- 4)모든 종류의 생명체를 포함하며 생물중심적으로 생물학의 뜻을 지닌다. 관계적이라고 할 수 있는 세계관과 유기적/총체적 세계인식 양식을 나타낸다. 모든 생명이 뗄 수 없는 상호의존성을 강조하는 일원론적 형이상학(monism)을 반영한다. 생태학은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 5)자연에 대한 물음은 주제 자체가 추상적이고 광범위하여 개념화하는 자체가 무리이다. 따라서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보는 측면에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다. 첫째, 대립하는 관계로 보는 것으로 정복과 지배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형이상학과 세계관은 플라톤, 데카르트, 로크의 철학으로 근대 계몽주의적 진보사상과 자연개발로 나타났다. 둘째,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관계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공존의 의미 자체에도 이미 존재론적 구별과 형이상학적 이원론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다. 셋째, 인간을 포함한 모든 존재를 총괄적으로 지칭하는 총체적 자연으로 인간은 자연 질서의 한 측면을 나타낼 뿐 구별하지 않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자연은 환경은 물론 생태계를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인 것이다.
- 6)박이문, 녹색논단, 환경과 생명 제 10권, 1996. 9, pp.104-114

2.1. 실재의 자연과 직접적 관계

우리는 자연을 표현할 때 '한 쪽의 그림 같은 자연' 혹은 '40도나 되는 더위'와 같이 설명하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자연은 신체의 감각지각7)에 의해 인식된 실재의 자연이 아니라 기술(記述)된 자연으로 사고를 경유하는 해석된 간접적인 자연 인식이다. "실재의 자연"8)인식은 <그림 1>과 같이 지각자와 구체적 자연사이의 동시적 관계이며 구체적 자연인 <그림 2>와 같은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을 가지고 스스로 작용하는 자연에 대한 인식인 것이다. 이는 생태계가 가진 습기, 한기, 온기 등은 물론 기술할 수 없는 자연의 활동성과 관계하는 것이다. 이것은 <표 1>과 같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선형적 원리 속에 종적, 횡적 관계 속에서 인간은 이를 인식하고 느끼는 것이다.



- 7)눈(봄), 코(냄새를 맡음), 귀(들음), 입(맛을 앎) 등
- 8)자연(시간과 공간) 속의 현실적 존재(Actual entity)들이 직접적으로 관계하고 있는 자연을 말한다. 이때의 자연은 현실적 존재들이 시·공간적으로 독립된 관계가 아닌 특정 순간에 횡적으로 연계된 모든 존재 전체와의 동시적 상호관계 속에 실재를 말한다. 인간 또한 이와 같은 관계 속에서 이를 인식 교류하고 있는 자연을 말한다.

오늘과 같은 생태계의 문제도 생존의 조건인 빛, 공기, 물, 토양에서 남기는 흔적이 오히려 신체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아름다운 관조의 대상 뿐 아니라 신체와 관계하는 생태학적 기능도 인식체계에 동시에 포함해야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인식이론에 대한 이해를 통해 직접적으로 관계하는 자연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인식이론의 방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2.2. 인식이론의 3방향⁹⁾

(1) 객관주의적 인식(객관이 규정)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시작,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해 완성되어 오늘날까지 타당성을 지니는 이론으로 감각지각(aisthesis)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각된 그것이라는 의미로, 감각 인식과 지성적 인식의 일치는 감각이 감각에 동화(同化)되는 것처럼 오성(悟性)¹⁰⁾은 사유 대상에 동화되는 구조를 가진다는 원리이다.

그러나 자연인식은 능동적 이성¹¹⁾에 의해 획득되는 이데아가 주된 인식이 되는 것으로, 최고의 조화, 신성한 질서, 구조의 완전성 등과 같이 추상(자연의 내적 질서)을 통해 획득된 본질적 개념인 '질서와 비례', '형식과 비례' 등이 실제자연과 일치하는 모사로 보는 것이다.¹²⁾ 건축은 수(數)를 수단으로 기하학적 비례와 수학적 체계를 사용하여 구체적으로 조형화되고 실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객관주의에 근거한 수학적 질서, 비례, 조화, 심메트리아 등과 같은 자연을 모사한 규범은 18세기 경험론과 낭만주의의 등장하기 전 까지 건축의 보편적 전제이었다. 이렇게 볼 때 생태계와 관련한 자연은 하위 단계로 취급되어 구체적 인식의 대상에서 소홀할 수 밖에 없게 된다.

(2) 주관주의적 인식

자연 존재와 사유의 일치는 존재가 사유하는 주체를 따를 때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인식 속에는 종합적 요소가 있어 혼돈의 상태에 있는데 사유의 인식능력이 오성의 결합 형식 즉 범주와 시간·공간이라는 선천적 형식을 매개로 정돈되고 형성된다고 한다. 따라서 의식이 자연이라는 대상을 파악할 때 실제로는 의식 자신 속에 표상된 형상을 파악하게 되므로 주관주의와 관련지을 수 있다.¹³⁾ 예를 들면 조화, 비례와 질서 등도 의식이 불러일으킬 때 일치가 가능한 것으로 자연의 속성이 아니라 나의 정신속의 의식이며, 불변의 성질이 아니라 의식의 상태에 따라 변하게 되는 것이다. 즉 관습, 연상 작용, 심리적

습성 등의 주관적 해석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인식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자연은 표상으로 실제의 자연은 단지 형상으로만 관계하게 되어 실재가 아닌 나의 사고가 만든 추상형태의 형식이 중요한 주체가 되었다. 합리론과 경험론을 종합하고 극복을 시도하고자한 이와 같은 주관주의적 접근은 예술을 자연으로부터 분리시켜 인공 환경의 구성 원리로 일반화되어 있다. 생태주의를 표방하는 많은 학자들은 오늘과 같은 인간중심주의 사상의 토대로 보고 이 이론을 비판하고 있다.

(3) 경험주의적 인식(주·객의 교호작용)

자연인식에 있어 분명한 것은 대상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우리가 이 대상을 경험(파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대상은 이념적 대상과 실재적 대상으로 나누어지는데 이때 전자의 존재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지만 후자는 부정할 수 있다.¹⁴⁾ 그러하다면 인식의 일치는 이념적 대상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된다.

이념적 대상은 인식과정 속에 있는 것으로, 신체는 지각의 인상을 수용하는 부분과 인상의 원인을 본능적으로 파악하는 부분이 결합되어 있어야 한다. 바로 실제의 자연과 일치한다는 것은, 경험(파악)하고 있는 경우에 만 가능한 것이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우리의 신체는 느끼고 의욕하면서 이 실재성과 직접적으로 경험(접촉)하고 있는 것이다.¹⁵⁾

경험하고 있는 것은 주관과 객관, 의식과 대상 사이의 교호작용으로 양자가 서로 각인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활동하고 있고 상호 활동성에서 인식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실재성 체험에 근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각의 질을 "주관과 객관적 성질"¹⁶⁾로 나누므로 일치할 수 없는 이원적 구조를 보여주고 있으며, 인과개념과 실체개념에서와 같이 경험 그 자체(사유)가 실제의 자연이 될 수 없고 그 원인은 대상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2.3. 실제의 자연인식

2.2.에서 논의된 실제의 자연인식에 3방향은 각자 타당성을 가지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 추구하는 생태학적 건축의 토대로서 실제의 자연과 인식에 부분적인 불일치를 보이고 있다.<표 2> 즉 자연과의 직접적 관계에 비례, 추상형태, 이념적 체험

<표 2> 기존의 자연 인식의 문제점

이론	자연 인식	문제점
객관주의	비례, 수적 질서	실재문제(존재를 의문할 때:주14), 경험 부재
주관주의	추상형태, 형식	본질과 현상으로 구분(현상만 인식)
경험주의	실재의 체험(이념)	인과 관계(대상의 부재)

9)Johannes Hessen, Lehrbuch der Philosophie, München : Ernst Reinhardt Verlag, 1964, 이강두 역, 인식론, 서광사, 1994, pp.13~15

10)사고능력이며 추리적사고에 의한 인식

11)각각의 상 속에 존재하는 본질을 볼 수 있게 만드는 이성의 기능이다. 형상의 수용은 수동적 이성의 작용이 된다.

12)Ibid, pp.40~46,

13)Ibid, pp.57~59,

14)이념적 대상은 이 명제를 설정할 때, 이미 이 대상의 실존을 통하게 된다. 그러나 실제적 대상, 예를 들면 붉은 색 또는 푸른색의 경우 그것이 실제하는지, 정신의 속에 존재하는지 인식할 수가 없다.

15)Ibid, pp.71~73, 로크(Locke, John)의 경험주의

16)크기, 형태, 운동, 공간, 수는 객관적 색, 소리, 냄새 등은 주관적으로 구분하는 주관내의 이원적 접근을 볼 수 있다.

등이 개입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위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비판하고 있는 화이트 헤드의 유기체 철학과 메를로 폰티의 지각 현상학을 근거로 합당한 방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3. 실제적 자연인식 특성과 건축

3.1. 실제적 자연인식 이론

(1) 화이트헤드의 자연인식

화이트 헤드는 실제의 자연과의 관계는 무수히 많은 “사건(event)”¹⁷⁾들과의 동시적 상호관계<그림 1>에서 설명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자연은 항상 변화하면서 존재하는 무수한 사건의 전체적·동시적 흐름이며 사건의 복합체이다. 우리의 지각에 직접 나타나는 실제적 자연은 감각적으로 의식되는 전체적 ‘지속’(duration=횡단면)<표 1 참조>인 것이다.

실제적 관계도 우리의 의식이 감각기관을 통하여 외부의 대상을 분산적으로 수용하므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지각자의 사건과 그의 외계의 사건과 상호관계만이 동시적이 되는 것이다.<그림 1, 표 1 참조> 따라서 인식과정의 그 내부에 보다 중요한 부분으로 비감각적 지각(non-senuous perception)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범위로 확장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그는 비감각적 지각으로 “인과적 효과성 causal efficacy”¹⁸⁾과 “현시적 직접성presentational immediacy”¹⁹⁾을 제시하며 이 과정에서는 자연과 인식이 경계 없이 통합된 단계로 나의 의식(주관주의 인식)이 개입하기 전 단계이므로 오류(불일치)가 개입될 소지가 없게 되므로 실제의 자연을 실제로 인식할 수 있는 단계라고 한다.

(2) 메를로 폰티의 자연인식

메를로 폰티는 화이트 헤드가 말하는 비감각적 지각에 대해 선소여(先所與) 세계 그리고 선인칭적(先人稱的) 세계로 표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세계 속에 자연과 정신을 매개해 주는 직접적인 존재(Being) 양식은 신체적 주관과 지각된 세계가 동일한 재료로 구성된 단일한 조직인 신체의 표면, 즉 살

(flesh,=Being)을 지칭한다.²⁰⁾ 이와 같은 세계에서는 자의적 의식이 개입되지 않으므로 오류가 개입할 수 있는 추상적 개념이 확립될 수 없는 단계이며, 명확하게 기술(記述)하기 어려운 ‘느낌’ 또는 ‘분위기’와 같은 단계이지만,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함을 주장한다.

3.2. 실제적 자연인식과 건축에 적용요소

화이트 헤드와 메를로 폰티의 이론에 의하면 실제적 자연과 동시적 관계는 시간과 공간의 조건 속에서 횡적으로 소여된 현실적 존재 전체와의 관계로 사건 개개의 독립된 관계가 아니다. 또한 소여된 개개의 사건들은 과거의 여건(자연의 법칙 등)에 필연적으로 순응해야하고 미래존재는 현재의 여건이 그 전체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순응하고 있는 소여된 전체는 상호 활동적 교류를 통해 생명적 교류를 하고 있는 것이다. 건축은 물론 소여된 사건의 하나인 인간은 이 속에서 자연을 느끼고 교류하며 진화해온 것이다.²¹⁾

실제의 자연인식은 앞에서 언급한<표 2> 형태나 공간, 이념적 사고에 앞서 인과적 효과성, 현시적 직접성과 선소여, 선인칭적 세계의 단계에서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자연인식을 바탕으로 건축에 적용될 때 소위 생태학적 건축의 자연, 인간과 건축이 통일을 이루는 총체적 자연도 가능한 것이다.

화이트 헤드는 이와 같은 자연인식은 생명력과 생존을 위해 자연에 적응하는 유기체의 진화론적 메커니즘으로 충분히 설명될 수 있다고 한다.²²⁾ 이들 이론에 따라 시간과 공간이라는 선형적 원리 속의 자연과 이를 느끼는 인간의 실제적 자연인식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소여성(Giveness : 所與性)

<표 1>과 같이 현재라는 특정 선택의 횡적관계 전체와 동시적으로 관계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현재의 인간과 건축은 물론 소여된 사건들은 전체(과거)와 가능성 사건도 포함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횡적으로 연계된 다른 존재의 활동성 또한 내포하고 있다. 즉 자연의 사실적 존재로 태양, 대기, 동식물, 지표면, 수면, 계절의 변화 현상, 건축의 표면과 재료 등을 들 수 있다.

(2) 활동성(活動性)

자연은 새로운 창조를 위해 끊임없이 진진하는 생명력이며, 다자를 통해 일자가 현실화되는 원리이다. 현실적 존재는 활동

17)현실적 존재라는 개념으로, 시간적으로 명백히 연장될 수 있고, 한순간에 발생하여 그것의 생성은 또한 소멸의 순간이 된다. 연장량에 있어 어떤 결정적인 방식에 의해 현실적으로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 객체화된 결합체이다.

Whitehead,A.N., Process and Reality: An Essay in Cosmology, New York: The Free Press, 1978(오영환 역, 과정과 실제, 민음사, 1991), pp.178~179

18)보다 근본적, 원초적, 생경하고 모호한 지각으로 과거의 계승이자 ‘합생’(concrecence)의 초기단계로 현시적 직접성에 여건을 제공한다. 정서성(순응적 느낌confomal feeling)과 인과적 연관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19)선명하고, 정확하며, 공간적으로 정초된, 다양한 유형의 기하학적 요소(연장적 연속체extensive continuum)들이 공간의 동시적 영역에 객체화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20)조광제, 메를로 폰티, 몸의 세계 세계의 몸, 이학사, 2004, p.368

21)신체는 존재의 부분이지만 자신을 넘어서고 있다. 그러나 신체는 그와 맞닿아 있는 외부세계의 부분이다. 엄밀히 말하면 어디서 외부의 자연이 끝나고 어디서 신체가 시작되는지 경계지을 수 없게 된다. Mode of Thought, New York : The Free Press, 1967(오영환·문창욱 역, 열린 사고와 철학, 고려원, 1992, p.36

22)칸트는 선형적 조건인 시간과 공간 내의 존재가 가지는 4가지특성은 결국 생물학적 진화의 산물이라고 하였다.

성을 통해 상호관계하고 있는 것이며 필요에 의해 활동하는 통합체이다. 원리로는 맥스웰(C. Maxwell)의 빛의 파동설과 전자기적 이론을 근거로 하고 있다. 즉 존재들과의 상호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에너지의 흐름, 물질의 흐름, 물의 순환, 감각 지각의 상호관계 등을 들 수 있다.

(3) 순응성(Conformit : 順應性)

인간의 경험은 수많은 행위들의 연속이다. 이 연속은 상태로 부터 상태가 파생된 것이며, 후속상태는 선행상태에 대한 순응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행위들은 과거에 순응해야 하는 조건들을 이미 확립하고 있는 것이다. 사건들의 연속은 순응성(conformity)을 통해 과거에 제한을 받으면서 미래를 제약하는 인과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과정인 것이다. 현실적 존재들은 자연의 내적 원리인 시간, 공간, 자연의 법칙, 물리·화학 적 법칙 등에 순응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4) 정서성(feeling : 情緒性)

실재의 자연 인식은 위의 3가지 자연의 특성을 느끼고 향유하는 것이다. 즉 지각의 근원적인 사실은 신체가 참여하는 것이며 생명 본질도 과거로부터 파생되어 미래를 향해가는 사건을 느끼는 정서성이다. 지각은 실재와의 접촉을 의미하는데, 원래적인 것은 사물로부터 생겨나는 정서적 토운(물리적 느낌-분위기)이므로, 바깥에 있는 무엇과의 최초의 접촉이 바로 이 느낌인 것이며 인식의 통합은 여기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게 볼 때 선행적 조건 속에 자연의 존재들은 소여, 순응, 활동하고 있으며 인간은 정서를 통해 이를 느끼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생명적 동시관계로서 자연과 인간의 통합적 일체(一體)는 네 가지 특성의 복합적 전체이므로 직접적 자연인식은 자연히 정서성을 통해 파악될 수 있는 것이다.

진화론적 정서이론을 따르고 있는 심리학자인 Ross Buck에 의하면 정서의 목적은 환경에 대한 적응과 항상성 유지라고 하며, Weismann은 유기체를 균형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이 정서의 기능이라고 한다. 특히 다윈은 인간의 수용기의 구조도 자연이라는 물리적 환경에 의해 유전적으로 진화된 것이라고 한다.

이것은 이성적 사고로 해석된 자연과는 다른 것으로 플라치크(Plutchik)에 의하면 안정적 생존과 관련되어 본능적인 느낌의 반응으로 생명의 거리, 질서와 관계하는 위계, 안정적 영역, 생명체의 종(種)에 대한 분별이라는 보편적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화이트 헤드가 “과학과 근대세계”²³⁾에서 시간의 반복, 자연법칙의 지배원리, 활동적 영역, 유형존속의 동일성이라는 보편적 주제를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예를 들면 추상형태, 이념적 공간 등과 같이 자연에 대한 해석 이전의 단계로 실재적 자연과의 직접적 관계인 것이다.

23)A.N.화이트헤드, 과학과 근대세계, 오영환 옮김, 서광사, 1989, pp.168-173

<표 3> 실재의 자연 인식

자연	내용	구체적 요소	인간	정서성(느낌)
순응성	내적 원리	시간, 공간, 자연 법칙 등	정서성 (안정적 생존을 위해 진화)	1)유한성, 2)단계적 질서, 3)안정적 경계, 4)동질성
소여성	사실적 존재	태양, 대기, 동식물, 지표면, 수면, 건축표면과 재료		
활동성	상호관계	에너지 흐름, 물질과 물 순환, 감각지각의 관계		

따라서 이와 같은 보편성을 근거로 본 연구는 정서성을 유한성, 단계적질서, 안정적 경계, 동질성으로 나누어 구체적 요소들을 사례를 통해 파악하고자 한다.<표 3 참고>

3.3. 정서성과 건축과의 연계

자연의 내적원리, 사실적 존재, 상호관계에 대한 구체적 요소<표 3 참고>들은 통합적 작동을 통해 물리적 환경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를 느끼는 정서성을 파악하는 사례로 화이트헤



<그림 3> 실재의 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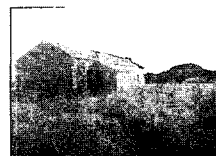
<그림 4> 산(山) 유영국

드, 플라치크 등의 이론을 토대로 자연 요소, 토속건축, 생태학적 건축 등의 사례에서 구체적 특성들을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해의 편의를 위해 실재의 자연<그림 3>을 “이해”²⁴⁾하는 접근사례와 추상화한 형태<그림 4>로 “해석”²⁵⁾하여 접근하는 사례로 나누어 비교한다.

(1) 유한성의 인식

인간, 건축물은 물론 생명체, 물질, 에너지 등은 시간적으로 유한하다. 시간의 유한성은 관계로부터 분리 그리고 자신의 상실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관한 수궁과 극복에 대한 정서적 배려는 진화적으로 습득되어 적응하고 있다. 정서진화론에 따르면 슬픔, 기쁨 등의 표현 그리고 종교, 제도 등은 시간의 유한성에 대한 특별한 진화라고 한다. 자연에 대한 직접인식도 유한성을 수용할 수 밖에 없게 된다.

1) 시간에 대한 인식



<그림 5> parma in Italy



<그림 6> Karjini공원 in Australia

건축물의 수명은 시간적으로 유한하다. <그림 5>의 건축물은 물질의 순환체계(생산

24)자연과 인간이 일체가 되는 관계로 전체화된 자연이라고 말할 수 있다. 동시적 상호관계에 있는 현실적 존재가 횡적으로 연계된 전체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인식하는 자연은 기술(記述)로 드러나지 않고, 몸의 선행성을 통해 인식되는 것으로, 타자화된 자연이 아니라 생활세계의 배경인 원래의 자연인 것이다.

25)객관화된 기술적 경험, 혹은 기술(記述)을 통하여 경험되는 자연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기술은 Text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해석(解釋)하지 않고는 이해 할 수 없다.

-소비-분해) 속에서 자연의 순환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를 수용하고 있는 인식은 옛것, 고 도시 등에 대한 정서적 공감이 형성 되어 있는 것이다. <그림 6>같이 녹슨 금속을 통한 시간에 대한 표현은 자연의 물질순환과는 거리가 있다.

2) 영속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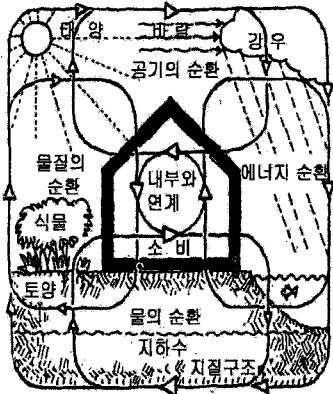
유한성에 대한 극복은 과거의 여건에 대한 보존과 이를 위한 보수, 복고적 성향, <그림 8>과 같이 구조와 지붕유형 등의 복제는 유한성을 극복, 영속하고자 하는 표현이다. 우리가 과거의 자연환경에 대한 계승과 전통성의 보존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 할 수 있다.

(2) 단계적 질서에 대한 인식

자연계는 태양을 정점으로 태양-대기-동식물-물-토양 등의 종속적 계층은 물론 개별계층 내에서도 상호간의 계층에 순응하는 수직적 차원의 질서가 형성되어 있다. 안정적 생존의 조건은 이와 같은 연결망의 단계를 통해 형성되어 있으며, 생명체는 이속에서 발생하는 현상과 내적 원리의 법칙을 벗어나 존재 할 수 없다. 생물과 무생물의 환경사이에 발생하는 에너지의 흐름, 물의 흐름 그리고 각자의 환경이 가지고 있는 습도, 온도, 방사선 등과 생산→소비→분해로 이어지는 순환, 항상성 등의 기능은 단계적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 자연생태계의 최적의 환경은 단계적 질서를 통해 유지되고 있으며, 인간의 인식은 이와 직접적으로 관계하게 된다.

1) 종속된 연계에 대한 인식

생태계는 태양-대기(강우, 공기)-동식물-지표면-물의 요소가 종속된 연계를 형성하고 이에 따라 주거환경도 분포 형성되어 왔다. 도시 그리고 단위 건축물의 계획에 있어서도 건축자체와의 관계와 더불어 이와 같은 종속된 연계가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 건축물도 연계의 부분으로 보면 건축물의 표면과 재료에 대한 고려는 이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그림 7> 종속된 연계

그러나 단위 건축물의 에너지 획득, 물질 순환(물, 온도, 공기, 습기 등)은 물론 주위의 기후여건 그리고 생태계의 안정적 여건 조성을 위해서는 일정규모를 가진 연계가 필요하다.²⁶⁾ 단순한 자연의 형태적 접근은 이와 같은 여건에 완벽한 연계가 부족하게 된다.

26)지역환경(기후, 생태계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공연못의 크기는 최소 1m 깊이에 지름이 30m는 되어야 한다. P.und M.Krusche의 2인, Ökologisches Bauen, Bauverlag, 1982, p.34

2) 중력에 대한 인식

생명적 현상을 제외하고 모든 자연속의 존재는 중력에 복종



<그림 8> 신촌사 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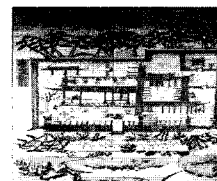
<그림 9> 윤봉길 기념관

하고 있다. 무거운 재료와 차가운 공기는 아래에 위치하고, 깊은 물과 깊은 산은 짙은 색을, 물은 위로부터 아래로, 사물은 아래 부분이 윗부분보다 견고하고 폭이 넓은 것은 모두 중력의 위계에 대응하는 것이다. 건축물의 재료도 무겁고 크기가 큰 것이 아래에 위치하는 것은 실제의 자연인식과 직접적 관계가 있는 것이며, 또한 재료의 위치에 따른 기후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8 참조> 사례<그림 9>와 같이 단순히 지역주의적 해석은 오랜 자연인식에 의한 정서적 공감과는 다른 것이다.

3) 에워싸임에 대한 인식

일정한 지역 내에서 수많은 세대를 거치면서 인식된 자연은 종속의 고리에서 보듯 일정한 단계에 의해 싸여져 있다. 여기에서 최적의 주거환경을 본능적으로 인식하고 있다.²⁷⁾

예를 들면 <그림 10>과 같이 산, 숲, 강, 경작지, 담 등으로 싸여진 전체의 자연인식에 대한 중요한 단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주거환경과 자연과의 관계는 특별한 에워싸임에 의해



<그림 10> 운주루



<그림 11> 지하주거 오스트리아

적당한 환경이 조성되고 그에 따라 정서적 안정이 유지된다고 볼 때, <그림 11>과 같이 하나의 요소에 의

해 지나치게 큰 규모의 에워싸임이나 지하에 에워싸임은 전체로 작용하는 순환체계(예를 들면 물, 성장식물, 지형 등)와의 실재적 관계는 멀어지게 된다.

4) 생명적 활동의 확장에 대한 인식

자연과 인간 그리고 건축물(소비 및 표면 재료)은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서로의 생명적 교류가 이루어진다. 인체에 위협이 되는 물질도 이와 같은 활동과 관련이 있다고



<그림 12> Tower Flower in Paris



<그림 13> TOD's Omotesando 빌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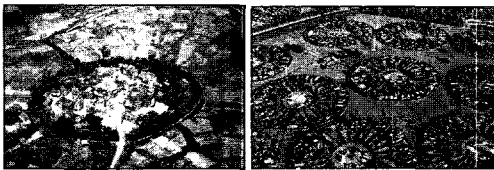
보면 건축물 표면의 재료도 대기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주게 된다. 인간에게 최적의 순환 관계를 제공하는 자연은 높은 지대 보다는 낮은 지대에서 생물 간의 교류가 활발하고 이

27)풍수지리설에 의한 택지, 묘지 등의 선택을 들 수 있다.

지대에서 역동적 확장이 진행되고 있다.²⁸⁾ 이것은 생명의 기초적 여건이 지표면과 가까운 곳에서 최적의 순환체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볼 때 건축물의 표면은 실제적인 생명적 교류여건을 제공해야 할 과제(생태계 기능: 광합성, 산소, 기후여건 등)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3>은 사고와의 관계이며 실제적 생명교류는 가능하지 않다.

(3) 안정적 경계에 대한 인식

진화론에 따르면 인간의 지각(知覺)도 생존을 위해 진화 발전되었다고 한다. 인간에게 있어서는 안정적인 생존과 번식의 문제가 기본적 주제가 되는 것으로 안정적 경계는 이와 관련이 있다. 이것은 식량과 같은 영양분(營養分)을 가진 일정규모의



<그림 14> Antananarivo 마을 <그림 15> 코펜하겐 외곽

공간 그리고 안정적 번식을 위해 자신의 통제하의 잠정적 영향권을

가진 공간으로 통제 가능여부가 기초적 전제가 된다.

인간은 안전한 장소를 위한 일정 공간을 장소의 맥락에서 본능적으로 습득하고 있으며 군집과 밀집에서 보듯 이와 같은 경계를 분명히 나타내고 있다. 특히 에너지의 획득(식량)과 생명의 보존을 위한 안전 영역은 확고한 경계체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를 통해 정서적 안정이 유지되어 온 것이다.

1) 통제에 대한 인식

식량의 획득과 안전에 대한 인식은 생존 자체이다. <그림 14>와 같이 이에 대한 건축 환경의 대응도 분명한 경계형태로 나타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통제는 물리적 또는 인위적 통제 없이도 경계에 의해 유지되어 왔으며, 이에 대한 암묵적 합의는 보다 더 강력하다. 이것은 식량 증식을 위해 관련되는 물, 식물 등에도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다. 생태계의 중요한 주제인 종의 다양성 문제도 안정적 경계를 보존하므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이며 종의 군집은 바로 자신의 통제구역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군집을 통해 안정적 종의 번식과 안전에 대한 통제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식량과 영양분에 관계하여서는 생활영역과 근접하여 위치하므로 내적 및 외적 통제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15>과 같이 안전을 위한 개별적 통제와 식량과 영양분의 영역에 대한 부재는 통제와 안정에 관한 정서적 인식은 약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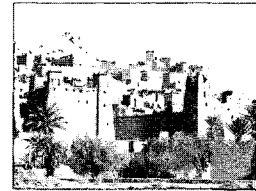
2) 소유에 대한 인식

안정적 공간의 확립과 경계는 소유를 나타낸다. 생명적 관계는 공동체의 기능을 통해 유지된다고 볼 때, 활발한 관계는 사적소유의 확대 보다는 공적소유의 확대를 통해 공동체의 기능은 활성화되고 안정성이 유지되어 왔다.<그림 14 참조> <그림

15>과 같이 개별화된 소유의 확대는 전체의 맥락에서 활성화 되는 있는 공동체의 기능은 약화된다.

(4) 동질성에 대한 인식

생명체는 종의 번식과 실존을 위한 구별 가능한 동질성이 있다. 실존의 문제는 집단 공동체를 통해 인식되는데 고립된



<그림 16> 모로코 와르자자트벤하두 성채 흉건축

개체는 번식과 생존이 불가능하다. 이 기본적 문제를 위해 수용과 거절을 해야 하는데 “동질성의 증거”²⁹⁾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같은 종에 대한 인식과 다른 개체와의 구별은 바로 정체 투쟁 속에서 이루어진다. 인간도 수많은 집단이 각자의 독특한 문화적 동질성을 가지고 공동체를 이루며 발달하여 왔다. 이는 근본적으로 지정학적 자연인식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된다. 예를 들면 모로코 와르자자트 벤하두 성채의 흙 건축 재료와 구조 등은 자연과의 동질성을 나타내는 직접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다.<그림 16 참조> 문화의 진화에서 보면 수많은 집단이 가진 독특한 동질성은 바로 문화에서 인식되며 인간과의 관계 뿐 아니라, 사회와 자연환경들 간의 작용에 의한 변증법적 관계로부터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한다. 이렇게 볼 때 동질성은 자연과의 일체성이 삽입된 인공 환경을 통해 인식된다고 할 수 있다.

1) 정체(正體)에 대한 인식

술츠는 정서의 안정감은 인간과 자연환경과의 일체가 중요 요인이며, 사람과 장소의 관계가 구체적 삶이 살아있는 실존적 차원의 관계로 이끄는 주요개념이 정체성임을 파악하였다.³⁰⁾

린치(Kevin Lynch)나 기버드(Frederick Gibberd)에 의하면 인간의 거주지는 실존적 기반이 구체화되는 작업이며 정체를 통해 정서적 안정감을 얻는다고 한다.³¹⁾ <그림 17>과 같이 마



<그림 17> 전통건축 유형 <그림 18> 진주박물관

을 형성 체계, 건축물의 구조, 재료, 세부적 건축 구성 요소의

형상 등은 처음에는 지정학적 위치에서 생산되는 재료 즉 자연 인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거주환경에 맞게 발전해 가다가 결국에는 공통된 주제로 통일되어 지역을 확장하거나 전통적인 문화로 고착되는 특성을 지니게 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림 18>와 같이 단순히 지역주의를 근거로 정체에 대한 형태 해석은 재료와 구조에 의한 자연인식과는 거리가 있다.

29)같은 종에 대한 인식과 다른 개체와의 구별 등, 인간의 경우 종족, 종교, 나이, 직업, 지리적 여건 등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다.

30)김기호, 공동주거와 아이덴티티, 플러스, 88년7월 p.138

31)이근수, 집합주거의 매개영역에 있어 아이덴티티 형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사, 1990, p.7

28)박봉규, 교양생태학, 이화여대출판부, 1982, pp.121-123

4. 실제적 자연인식과 건축적 특성

전술한 바와 같이 메블로 폰티와 화이트 헤드가 언급하는 선소여의 세계, 선인칭적 세계, 인과적 효과성, 현시적 직접성의 단계는 자연과 인간이 구분 없는 동시적 상호 관계로 느낌 또는 “분위기³²⁾”와 같은 전체로 인식되는 통합된 단계이다. 자연의 여건에 따라 진화된 인간의 정서와 통합되는 도시, 건축, 실내건축 환경은 이와 같은 특성으로 구성된 자연의 원리가 작동하는 체계를 가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³³⁾

이것은 실제의 자연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객관적, 주관적, 경험주의적 자연인식과 같이 비례, 추상형태의 형식 등과 같은 기술된 자연과는 다른 직접적, 동시적 등의 관계를 가지는 것이다.<표 4참고>

<표 4> 자연과 인간 인식의 관계 (1직접=이해, 2간접=해석)

1	자연	직접적, 실제적, 동시적, 생명적	인간 인식
2	자연	기술(記述), 예술, 예술작품 비례, 추상형태의 형식, 공간의 경험	인간 인식

실제적 자연인식은 자연과의 동시적 상호관계에 있는 것으로 자연과의 조화로운 통합적 관계라는 생태학적 건축·실내건축의 구성 원리도 이를 근거로 함으로 궁극적인 목표가 완성될 수 있는 것이다. 즉 자연은 순응성, 활동성, 소여성을 가지고 있으며 인식은 이를 느끼는 즉 정서성인 것이다. 따라서 자연과 인식의 통합은 4가지 속에 일체가 되는 것이며 실제적 자연인식은 정서성을 통해 파악되는 것이다.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표 5> 실제적 자연 인식

일체(一體)의 단계	자연		인간	
	순응성, 활동성, 소여성		정서성	
실재의 자연인식 (정서성=순응적느낌)	실재의 자연인식(정서성)			
	단계적 질서	안전과 안정성	유한성	동질성
	중속, 중력, 에워쌈, 확장	통제, 소유	시간, 연속	정체

5. 결론

실재의 자연인식은 아리스토텔레스를 대표로하는 객관적 접근, 칸트의 주관적 접근 그리고 로크의 이분법적 사고의 경험적 접근으로는 실재의 자연에 대한 근원적인 설명이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와 같은 이론은 자연과 인간이 생명적 관계 속에 동시적으로 존재하는 실재의 자연을 이성적 사고에

32)일정범위와 거리를 가지는 공간 내의 표면과 표면의 재료에서 생겨나는 사물의 형세, 상태, 색깔, 소리, 향기, 촉감을 통합적으로 수용하여 느끼는 것이다. Gernot Bohme, Atmosphäre, 1995, p.31

33)생태학적 자연(총체적 자연)의 완성을 뜻한다.

의해 산출된 해석을 근거로 살아있는 실재를 설명하는 오류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실제적 자연인식에 부합하는 이론으로 화이트 헤드와 메블로 폰티의 인식이론은 자연과 인간의 인식이 일체(一體)가 되는 단계로 선인칭적 세계, 선소여의 세계, 인과적 효과성, 현시적 직접성을 제시하므로 실제의 자연과 인간 신체와의 직접적인 관계인 동시적·생명적 관계를 명확히 설명하고 있다.

자연은 시간과 공간의 선형적 원리 속에 순응성, 활동성 소여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느끼는 인간의 정서성이 실제적 자연인식의 특성으로 파악되었다. 이것은 부분이 아닌 현실적 존재 전체가 통합적 관계 속에 설명되는 것으로 건축내외 환경이라는 물리적 대상이 “생태학적 자연”³⁴⁾완성이라는 목적에 충족하기 위해서는 실제적 자연을 느끼는 정서성의 특성을 세부적으로 파악하여 이를 근거로 건축내외 환경에 적용하므로 가능하다고 본다.

정서성을 분석하기 위한 사례는 본 연구의 논거 상 실제적 자연을 주로 하여야 하나 주거환경 자체도 자연에 적합성을 위해 진화해온 과정으로 보면 분석의 대상으로 큰 무리가 없으리라 본다.

이를 통하여 분석된 실제적 자연 인식체계는 <표 5>와 같이 파악되었으며 ‘생명적 관계’가 중요한 주제로 인식되었다.

건축 및 실내건축의 접근에 있어서도 인간이 중심이 되는 접근에서 자연이 주체적 지위가 되는 접근으로 바뀌어야 한다. 또한 건축의 표면, 재료 그리고 표면구성에 있어서도 형태구성을 위한 비례, 수적 질서, 추상적 형태의 형식원리, 기하학적 공간해석 등에 앞서 중속, 중력, 확장, 시간의 유한, 정체 등과 같은 실제적 자연인식이 건축내외의 구성에 우선적으로 취급되어야 할 요소로 파악되었다. 이와 같은 체계가 지나치게 자연 지향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생태학적 건축의 주제인 주위에 대한 적응(기후, 지형, 토양, 동식물, 물 등), 자연의 잠재적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사용, 주위 환경과의 조화로운 상호작용과 수평적 물질순환, 적합한 밀도와 크기, 독자성, 다양성 보장 등 그리고 현재의 기술(技術)과 접목하여 접근의 폭을 넓힐 수도 있다고 본다. 또한 향후 자연인식과 관련한 보다 세밀한 생태학적 건축 접근 연구에 기초적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적 자연인식을 토대로 한 접근은 개개의 개별완성이 아닌 전체를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방도로, 이를 통해 쾌적한 삶의 질을 동반한 느낌, 분위기의 완성은 물론, 건축 내·외환경과 자연과의 간극을 최소화하고, 자연에 대한 적응을 통해 안정된 생존을 보장 받아온 인류의 진화론적 역사와 같이 미래의 환경은 자연 그리고 인간과 인공 환경이 자연을 주체로 생명적 통합을 이루는 생태학적 자연(총체적 자연)으로 완성될 수 있으리라 본다.

34)자연, 인간 그리고 인공 환경을 포함하는 전체가 생태학적 원리로 통합되는 자연을 말한다.

참고문헌

1. Ökologisches Bauen, Per Krusche 외 3인, Bauverlag 1982
2. Öko-Test, Rüdiger Dammann, Sachbuch 1994
3. Johannes Hessen, Lehrbuch der Philosophie, München : Ernst Reinhardt Verlag, 1964, 이강두 역, 인식론, 서광사, 1994
4. Atmosphäre, Gernot Böhme, Suhrkamp Verlag Frankfurt a.M, 1995
5. 구승희, 생태철학과 환경윤리, 동국대학교 출판부, 2001
6. A. N. 화이트 헤드, 오영환 옮김, 과정과 실재, 민음사, 2003,
7. 박태규, 교양생태학,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82
8. N.J. Habraken, 김억중의 9인 공역, 일상의 건축, 기문당, 2000
9. 조광제, 몸의 세계 세계의 몸- 모리스 메를로 폰티, 이학사, 2004
10. 김자경, 자연과 함께하는 건축, 시공문화사, 2005
11. 함정도, 친환경건축의 이해, 기문당, 2003
12. 김애현·정영철 공편역, 건축·설계의장론, 도서출판 국제, 1990
13. 김경희, 정서란 무엇인가?, 민음사, 1997
14. N. 화이트 헤드, 문창옥 옮김, 상징활동 그 의미와 효과, A.동과서, 2003
15. 이근수, 집합주거의 매개영역에 있어 아이덴티티 형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논, 1990
16. 박상태, 화이트헤드의 지각 이론에 관한 연구, 연세대 석사논문, 1995
17. <http://www.yannerthusbertrand.org>

<접수 : 2006. 4. 14>